

<고초열>을 통해 본 오태석의 초기 작품 세계

김남석*

〈차례〉

1. <고초열>의 발굴과 연구의 필요성
2. 폐쇄 공간과 상징 공간의 중첩
3. <고초열>의 서사와 특징
4. 극적 모티프의 유사성과 영향 관계
5. 오태석 초기 세계에서 <고초열>의 위상

1. <고초열>의 발굴과 연구의 필요성

<고초열>은 1968년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명동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오태석 작, 임영웅 연출이었고, 배우로는 신협 소속의 김동원, 황정순, 전양자, 김금지, 박암, 오현주, 김무생, 남능미, 전윤희 등이 출연했다. 그러나 이후 작품은 유실되었고, 당시 출연진조차 배역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기록은 부실하였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상태이다. 오태석을 연구하는 이들도 이 작품이 과거에 공연되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¹⁾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시

* 부경대 계약교수

1)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흥성사, 1982, 537면 참조 ; 백로라, 1960년대 오태석 희곡 연구, 『한국연극연구』 2집, 한국연극사학회 1999, 168면 참조

상황을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작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은 한국 연극에서 사라진 작품이 되었고 오태석의 작품 계보에서도 잊혀진 작품이 되었다.

이 작품의 유실은 오태석의 초기 작품 연구에 커다란 손실로 작용했다. 오태석의 초기 작품 세계는 지금과는 그 성향이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오태석이라는 문제적 작가의 정신적 궤적을 이해하고 그의 작품에 흐르는 일관성과 형식적 상관성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고초열>은 오태석의 초기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간행된 『오태석 공연 대본 전집』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고 이 작품의 발견 가능성을 백방으로 탐색했으나, 끝내 구하지 못하고 ‘유실’로 처리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다행히 <고초열>의 대본을 구할 수 있어서, 장래 오태석 연구와 60년대 작품 연구와 미래에 고쳐 쓰여질 한국 희곡(연극사)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 우선 <고초열>은 수준 높은 완성도를 지닌 작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오태석의 문제작인 <환절기>와 여러 모로 비교가 가능하고, <환절기> 이후 오태석의 작품 세계가 변모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 오태석 초기 작품 연구를 보다 확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고초열>을 소개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탐구하는 작업 못지 않게, 인근 작품과의 비교 연구 혹은 영향 관계 연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초열>의 분석과 초기 작품의 비교 연구를 아울러 시행하려 한다.

과거 한국 연극은 자료의 가치와 작품 보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고초열>의 유실은 이러한 부실과 무관심이 폐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적실한 사례이다. 이에 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연극적 교훈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폐쇄 공간과 상징 공간의 중첩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현대 6월초’이고 공간적 배경은 ‘서울 어느 아파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초입 수위실 인근이다. 작가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무대 지문을 보자.

무대

아파트의 현관(로비)

오른 쪽에 현관이 있다. 조금 꺾여 칸칸이 된 유리 너머로 안이 다 보이는 교환실이 있고 거기서 무대 중앙으로 조금 떨어져 관리인 겸 수위의 탁자 의자 그리고 바로 뒤편에 사선(斜線)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무겁게 놓여 있고 층계 저쪽은 벽이 된다. 그 벽에서부터 무대 뒤편 중앙의 공간은 뚫려 있다.

즉 아래채 저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난간이 되고 난간은 사람 허리쯤 차는 높이로 된 보기 좋은 철책이 서 있다.

이 난간이 돌아가는 모퉁이 그러니까 무대 오른쪽 관리인의 탁자가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왼쪽의 지점에 철근 콘크리트로 무겁게 앉았는 등 그런 돛과 같은 보일러실이 있다. 무대 중앙 쪽을 향해 철판 문이 달려 있다.

그리고 몹시 위쪽에 두 자 폭이나 될까한 유리창 문이 하나 보인다. 이 보일러 실 앞쪽으로 해서 아파트 아래채 이쪽으로 통하는 복도가 있는 셈이다. 무대 뒤편의 중앙 공간 그러니까 난간 철책이 있는 저쪽으로는 시가지의 불빛 실루엣처럼 떠오르는 고층 건물 등이 뿌연게 떠오른다.

노인의 탁자와 주린의 유리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각 호수로 연결되는 층계와 현관을 둘러싼 난간이 보인다. 특이한 것은 왼쪽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이다. 이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다 인물들이 안으로 들

어갔을 때, 그 움직임은 볼 수 없도록 시야가 차단되는 밀실이다.

작가는 인물들이 왕래하는 현관을 무대로 삼고, 이후 무대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주린과 노인은 이 공간에서 아파트 각 호수의 인물들과 대면하면서 사건들을 증재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의 처가 죽고 이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곳인 동시에, 국정과 희정 혹은 준상과 옥연의 관계를 알려주는 정보가 수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정이 살해되는 보일러실로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오태석의 초기 작품은, 이른바 ‘웅접실 연극’의 구도를 따르고 있다. 공간적으로 단일한 곳을 선택함으로써 인물들이 그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셈이다. 가령 <고초열> 이전 작품이면서 창작 계기를 부여한 <환절기> 역시 이러한 공간적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테라스를 낀 웅접실이 고정된 공간이다. 오태석의 데뷔작인 <웨딩드레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성향은 비단, 오태석만의 특징은 아니었다. 고정된 공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당시 연극계의 관습이었다. 이 시기에 데뷔하여 막 활동을 시작한 오태석도 당대의 유행을 따른 것이다. <고초열> 역시 아파트 출입구를 고정된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일러 실’이라는 매력적인 공간은 고정된 공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일러 맨은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보일러 맨은 보일러실이라는 어둡고 음침한 장소를 대변하는 하나의 오브제²⁾이며, 확장된 의미에서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살의(殺意) 혹은 어두운 무의식을 상징한다. 오태석은 정신이상 징후의 인물인 보일러 맨과 상징적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가중시키고, 인

2) 오브제란, 극의 물질적, 가시적 재료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배우의 육체, 무대 장치, 소도구 등이 포함된다. 이 작품에서 보일러 맨은 배역 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무대 장치(뚝)나 소도구(문 여닫는 기척)에 의존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일반 배우의 개념이 아닌 오브제로 설명되는 것이 적당하다(안느 위베르스펠드, 신현숙 옮김, 『연극기호학』, 문학과지성사, 1988, 180면 참조).

간의 무의식에 대한 상징성도 공간적 배경에 반영한다. 비록 여기서는 작은 변화이지만, 이후 오태석의 연극이 공간적 유연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징후로 이해된다.³⁾

상징적 공간의 설정은 <환절기>에서 촉발된 것이다 <환절기>에서는 조명 변화와 음향 효과 그리고 환상적 분위기를 통해 공간의 변화를 모색했고 이것은 기존의 공간적 단일성을 추구하던 오태석의 공간 개념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확대하여 <고초열>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상징적 공간을 도입하고 플롯을 전개하면서 그 활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공간의 중첩 효과는 오태석의 초기 세계에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중기 이후의 작품 세계에서는 작품의 공간적 개념을 변화시키는 라이트모티프로 작용했다.

3. <고초열>의 서사와 특징

3.1. 서사의 개요와 소개

<고초열>의 대본은 유실되었고, 관련자들의 증언은 상세하지 않았다. 심지어 작가 자신도 이 작품의 줄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사 분석 이전에 상세한 줄거리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이 작품은 대단히 복잡하다. 오태석 특유의 난해함이 도사리고 있고 작법 상의 완성도도 그리 높지 않다. 작품 내부의 인과관계를 다소 첨부하

3) 오태석은 미국 브로드웨이 견습을 통해, '산대놀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간적 전환을 빈번하게 구사하는 연극을 창작하게 된다. 그 이후의 연극은 공간적으로 유리된 수많은 장면으로 이루어진 희곡과 연극에 치중하게 되어, 초창기 응접실 연극과 대조를 이룬다(오태석·서연호 대담, 오태석의 창작활동, 《오태석 전집》 5, 평민사, 1994, 343면 참조)

여 줄거리를 기술해 보겠다.

배경은 늦은 저녁, 아파트 현관이다. 노인(수위)과 주린(전화교환수)은 일을 하다가 한가한 틈을 타서 잡담을 하고 있다. 그 때 준상과 옥연이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온다. 둘은 노인과 주린에게 장난을 친다. 특히 ‘둘째 각시’가 안 왔느냐며 수작을 거는 준상에 대해, 주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모른 척 한다.

그들이 집으로 올라가자 전화가 걸려온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괴이한 전화로 302호로 걸려온 것이다. 302호 여자는 밤마다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을 기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날은 여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뒤를 이어 ‘둘째 각시’를 찾는 장난 전화가 걸려온다. 주린은 개 짖는 소리가 나는 전화를, ‘둘째 각시’를 찾는 준상의 전화에 연결하는 장난으로 응수한다.

뒤를 이어 국정(302호)이 도착하고, 희정과 그의 모친부인이 도착한다. 국정은 차분한 인상의 남자이다. 희정은 집에 빨리 오기 내기를 모친과 한 듯, 늦은 이유를 장황하게 변명한다. 국정은 그러한 희정에게 남자 친구를 늦게까지 만나지 말라고 조언하고, 희정은 이 말에 토라져서 두고 보자는 악담을 한다.

국정이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죽어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대 소란이 벌어진다. 처음 설정에는 약을 먹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개 짖는 소리의 실체를 확인할 겸 술 심부름을 나왔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된 옥연은 억측을 늘어놓는다. 302호 여자의 죽음은 개 짖는 소리가 나는 전화 때문이며, 이를 연결해 준 주린도 공범일 것이라는 억측이다.

2장은 302호 여자가 죽고 소란이 일어난 지 이틀 후이다. 국정은 상심에 잠겨 있고, 희정은 국정에게 모친 소리를 했던 것에 미안해하고 있다. 준상은 옥연의 억측을 이용해 주린을 협박한다. 주린이 자신의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모자로 밀고하겠다고 한다. 준상은 302호 여자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알고, 이를 밝혀내서 한 몫 단단히 벌겠다

는 심산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준상은 평소 관심 있던 주린까지 손에 넣으려고 한다.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된 주린은 어릴 적 죽은 오빠는 실은 자기가 죽인 것이라는 사실을 보일러 맨에게 털어놓고 보일러실로 내려간다. 그러나 그곳에서 봉변을 당할 뻔하고 보일러 맨의 무서움을 확인한다.

2장에서는 주린의 충동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국정에 대한 도발적 태도가 그러하다. 주린은 국정을 유혹하기 시작한다. 국정을 염탐해 달라는 준상의 협박이 있었지만, 정도 이상으로 주린은 국정에게 관심을 보인다. 국정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던 희정은, 주린에게 ‘거리의 여자’처럼 굴지 말라고 충고한다.

3장에서는 준상의 추적이 더욱 집요해진다. 준상은 개 짖는 전화가 동물병원에서 걸려 온 것이고, 개를 맡기면서 수상한 남자가 전화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준상은 그 남자를 302호 남자로 여기고, 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주린에게 떠보라고 시킨다. 주린은 준상이 준 정보로 국정을 떠보는데, 국정은 여기에 깜짝 놀라 진실을 자백한다. 국정의 실토는 죽은 처의 목소리와 결합되면서 연극적으로 환상 장면을 연출한다.

국정은 그 날 밤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느닷없이 등에 업혔고, 자신은 아내인 줄 모르고 계단으로 던져 아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명백한 실수였기 때문에, 관리인 노인과 상의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한다. 아내는 과거에 한 사람을 벌 것 아닌 이유로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무마하고자 한다. 주린에게도 무죄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다.

주린은 이 부탁을 거부한다. 국정의 처가 벌 것 아닌 이유로 살해했던 사람이 실은 아내의 정부(아버지의 부관)였고 그 이유가 남편 있는 여자에게 동침을 요구했기 때문임을, 국정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에게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잠재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비록 오발이었지만 이전에 국정이 아내를 죽일 뻔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국정의 무죄를 믿지 못하게 만든 이유였다. 주린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자, 국정은 주린을 살해하려 한다. 주린은 보일러실로 피하고 뒤따라 간 국정은 보일러 맨에게 살해된다.

4장은 국정이 죽은 그 다음 날 아침이다 철이 아닌 데도 밤새 가동된 보일러로 인해 아파트에 일대 소동이 일어난다(국정의 시신을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의 죽음은 감쪽같이 덮이고, 주린 역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을 하고 있다. 몇 가지 사소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다 더운 방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열었다가 희정이 감기에 걸리고, 이를 위로한다고 모친이 꽃다발을 사지만 ‘고초열’(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 꽃다발은 주린에게 돌아간다.

또 옥연은 준상의 마음이 이미 떠났음을 알고 깨끗이 물러날 것을 결심한다. 흥미로운 것은 준상의 ‘두 번째 연인’으로 주린을 지정한 것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주린이 이를 수락한다는 것이다. 주린은 느닷없이 꽃다발을 받은 것처럼, 준상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의 연인이 된다. 주린은 준상의 품에서 오빠를 살해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준상은 주린의 이상한 태도에 놀라지만, 주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막이 내린다 그녀의 모습은 ‘팜므 파탈’의 이미지를 풍긴다.

3.2. 핵심 모티프의 특징

3.2.1. 숨겨진 살인 사건

<고초열>에는 네 개의 살인 사건이 배치된다. 두 개는 플롯의 진행과 함께 발생하고(표면적), 두 개는 과거에 발생했던 것으로 등장 인물의 입을 통해 밝혀진다(이면적). 표면적 살인 사건은 국정이 처를 죽인 사건과, 보일러 맨이 국정을 죽인 사건이다. 보일러 맨이 국정을 죽였지만, 국정

을 보일러 맨에게 인도한 것은 주린이라는 점에서 주린이 국정을 죽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정당 방위의 측면은 인정되나 이후 처리 과정에서 주린은 살해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정과 주린은 살인범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과거의 살인에도 연관되어 있다. 국정은 아내가 정류情夫를 죽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못마땅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주린은 과거에 오빠를 죽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살인을 기억하고 있고 현재의 살인 사건에 역시 깊게 연루되어 있다.

<고초열>은 복잡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살인 사건이 해석의 단서를 줄 수 있다. 사실 주린이 갑작스럽게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도 일면식이 없는 보일러 맨에게 비밀을 토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네 개의 살인 사건을 순서적으로 연결하면 이러한 심리 상태에 대한 일정한 연관성을 취할 수는 있다.

먼저 국정은 자신의 처가 사람을 죽인 사실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참에 아내의 장난을 이용해 그녀를 죽인다. 고의적으로 그녀를 죽이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 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성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아내의 외도나 살인이 남편인 국정에게 바람직하게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 채고 있던 주린(주린은 살인 당일 위층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은 준상의 추론을 들으면서 국정에게 비밀이 있음을 직감한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살인 행위를 떠올리며 돌발적으로 살인죄를 고백하게 된다(그러나 이러한 동기 부여도 어색한 플랫폼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다).

이로 인해 국정에 대한 반감과 원망을 품게 된다. 국정이 살인을 저질렀음이 밝혀지자, 주린은 이를 숨겨주지 못한다. 국정은 주린의 입을 막기 위해 그녀를 죽이려 하고, 주린은 도리어 국정을 보일러실로 유도해

서 살해당하게 만든다. 겉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그 다음날 보인 담담한 태도로 판단하건대 국정에 대한 살해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어린 날 오빠를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담한 살인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과거의 살인이 이면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 현재의 살인이라는 표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살인은 별 것 아닌 꽃가루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아파트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곧 흐지부지 묻히고 만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대인의 비정함과 인간관계의 삭막함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인 것이다.

1960·70년대 희곡에서 살인 모티프는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데뷔 무렵의 오태석도 이러한 풍조를 반영하는 희곡을 창작한 것이다. 그러나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서사의 추동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살인 사건 모티프는, 평범한 설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살인의 이유가 의미 있는 설정을 이끌지 못했고, 살인의 과정에서 서스펜스가 창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해석과 미학적 쾌감을 동반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자극적 소재가 주는 흥미 위주의 볼거리로 그치고 말았다 <고초열>도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이다

3.2.2 개 짖는 소리의 중의성

준상은 302호 여자의 죽음이 개 짖는 소리와 관련 있다고 믿는다. 원래는 옥연의 역측에서 출발했지만, 주린의 장난으로 연결된 전화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고 국정의 처가 죽자, 죽음의 원인이 개 짖는 소리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상의 추론은 근거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계기로 작용한다. 개 짖는 소리로 인해 국정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살인 동기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개 짖는 소리는 주린과도 관련이 있다. 아파트 주위를 배회하면서 짖

어대는 개가 있는데, 그 개가 짖을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주린이 개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양심을 먹은 개가 아파트 주위를 돌면서 짖은 것이다. 더구나 주린이 개 짖는 소리를 흉내내자, 국정마저 죽게 된다. 이처럼 개 짖는 소리는 반복되는 살인 모티프로 이 작품에 작용한다.

개와 살인 사건의 연관성은 국정이 오발로 처를 죽일 뻔한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개가 대신 죽게 되면서 아내는 살게 되는데, 이는 ‘개’와 ‘죽음’을 연관시키려는 오태석의 복선으로 해석된다.

3.2.3. 비밀의 폭로와 죄의식의 상징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은밀하게 숨겨졌던 욕망도 동시에 드러난다. 주린은 평소 잘 알지도 못하던 국정을 유혹하거나, 그토록 거부하던 준상을 받아들인다. 희정도 국정에게 애정을 고백하며 대담하게 집을 방문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녀들이 정상적인 범주에 있을 때 자행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열병에라도 걸린 듯 남성들에게 대담하게 행동한다.

그 이유는 그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주린은 오빠를 죽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희정은 경망스러운 발언이 국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다(아내의 죽음)고 자책하고 있다. 이러한 죄의식은 상대적으로 욕망을 억누르는 힘을 약화시킨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신체의 열병을 일으키듯, 죄의식이 정신의 통제력을 상실시킨 것이다

처녀들의 죄의식은 지하실의 어두운 이미지와 관련된다. 그 내부가 공개되지 않고, 그 안에 정신 이상자가 살며, 실제로 살인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지하실은 무의식을 상징한다. 인간의 무의식은 늘 어두운 공간을 연상시키고, 정신 이상 징후를 포괄하며, 죄의식을 담고 있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린은 지하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그 공간을 탐험하

기도 한다. 주린이 그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웅크린 무서운 기억을 항상 인식하며 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린은 과거의 기억(죄의식)에 얽매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부를 죽인 아내도 그러했을 것이고, 아내를 증오하다 죽이게 되는 국정도 그러했을 것이다. 국정을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희정도 은밀한 욕망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지하실을 무대에 설치하고, 보일러 맨을 등장시키며, 주린으로 하여금 그 공간을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러한 설정들이 인간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시각적 장치와 상징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오태석은 <고초열>을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를 탐구하고 무대 위에 재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낸 셈이다.

오태석은 어둡침침한 지하실의 이미지를 통해 내면에 고인 어두운 기억, 숨겨야 할 욕망, 비밀스러운 과거, 죄의식을 상징하고, 내면에서 죄의식이 폭로되는 순간을 극화한다. 비록 이 작품은 완벽한 구조나 완성도를 성취한 경우는 아니나, <환절기>처럼 과거의 비밀스러운 기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강조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4. 극적 모티프의 유사성과 영향 관계

4.1. <환절기>에서 변형된 모티프

4.1.1. 창작 계기

이 작품은 <환절기>와 관련성이 높다. <고초열>의 창작은 <환절기>의 성공에 의해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게(<고초열>:인용자) 극단 실험 작품이에요. 임영웅(林英雄) 선생이 <환절기> 연출하고 반응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실험에서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작품이 없느냐, 그래서 내가 써 준거죠. 그런데 좀 급하게 쓰느라고 작품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⁴⁾

<환절기>는 국립극장과 경향신문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장막극 공모 당선작이었다. 1968년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명동 국립극장에서 임영웅 연출로 공연되었다. 당시 공연은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여석기는 이 공연과 관련된 평을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신인작가의 대거 진출은 근년에 없었던 일이었다. 그 중에서 작품 가지고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환절기>뿐이다. 다른 작품들은 모두 어딘가 구성이 허약하거나 주제의 추구가 희미한데 비해 이 작품은 젊은 부부 사이의 애정 위기를 심리의 좌표 위에 설정하는데 매우 적확하고 계산해 놓고 있다. 그리고 대사가 싱싱하고 함축적이어서 어느 기성의 아류 같은 인상도 주지 않는다.⁵⁾

호평에 고무된 실험 측은 오태석에게 작품을 의뢰하고 임영웅을 초빙하여 작품을 제작했다. 그것이 <고초열>이다. <고초열>은 1968년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역시 명동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환절기>에서 <고초열>까지의 기간은 4개월이 조금 넘는 정도로, 그 기간 동안 작품을 집필하고 수정하고 연습해야 했다. 이것은 대단히 촉박한 기간으로 통상적인 기준에 의거할 때 오태석이 작품을 의뢰 받고 집필하는 기간이 두 달 남짓에 불과했음을 뜻한다. 오태석의 증언대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유를 여유 없는 집필에서 찾을 수 있다.

4) 오태석·서연호 대담, 장원재 정리, 『오태석 연극 실험과 도전의 40년』, 연극과 인간, 2002, 46면.

5) 여석기, 밝아지는 창작극의 앞날, 『중앙일보』, 1968년 11월 9일.

4.1.2 살인 사건 모티프

주목되는 것은 <고초열>과 <환절기>의 유사성이다 먼저 사건의 이면에 살인 사건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환절기>의 조대빈·한나영 부부는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대화 내용이나 난데없이 펼쳐지는 요상한 곳은 두 사람의 불길한 과거를 암시한다. 불길한 과거는 설악산 불바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뜻한다. 조대빈과 이정애, 김형주와 한나영은 애인 사이였는데, 그만 이정애와 김형주가 내연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정애가 임신을 한다.

네 사람은 설악산에 놀러 갔다가 불바위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고, 이정애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만 간신히 구조된다. 김형주가 이정애를 죽였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임신 증절을 두고 벌인 다툼이라든지 그 이후 나타난 김형주의 정신 이상 징후로 보았을 때 이정애의 죽음이 김형주와 관련된 것임은 틀림없다. 이정애가 살해당했다면 그 살해자는 김형주인 셈이다.

<고초열>에는 네 개의 살인 사건이 배후에 숨어 있다. 그 중에서 아내가 정부를 죽인 사건과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은 치정 관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두 살인 모두 고의성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성욕과 애정의 갈등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⁶⁾

두 작품의 살인 사건은 플롯의 이면에서 사건을 움직이는 내면적 동기로 작용한다. <환절기>에서 엿보이는 불안한 부부 심리나, <고초열>에 나타나는 302호 여자를 둘러싼 일련의 긴장은 살인 사건이 배후에 잠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6)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에도 두 사람이 살해당하고 있다. 이로 판단하건대 60년대 오태석은 자극적인 사건인 살인 사건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었다.

4.1.3. 정신 이상 징후

인물형에서도 두 작품은 동일한 측면이 있다. <환절기>의 경우, 김형주는 휠체어에 탄 채 등장한다.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는 석상과 같은 인물이지만, 말없는 등장으로 인물 사이에 긴장감을 형성한다. 그의 등장은 나영과 대빈에게 과거를 환기시키고, 특히 나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기능을 한다.

<고초열>의 ‘보일러 맨’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보일러실 인부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사도 거의 없이 기척만으로 출연한다. 그러나 그가 점유한 공간은 주변 인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주린은 보일러실에 내려갔다가 위기에 처했고, 국정은 그 공간에서 죽었다. 환상 장면에서 연관성을 찾자면, 보일러 맨은 <환절기> ‘실루엣’의 변형이다. 김형주가 등장하기 이전에 실루엣으로 그의 이미지가 표현되었는데, 보일러 맨도 비슷한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정신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물형은 작품 전체에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 비정상적인 성향으로 인해 정상인의 심리 상태 역시 불안하게 만든다. 또 두 사람은 말과 행동이라는 일반적인 연기 방식이 아니라, 침묵과 이미지(휠체어)라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연극에 참여하고 있다. 일종의 오브제이고 상징인 것이다.

4.1.4. 연인 교환 모티프

‘코믹한 연인’의 설정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환절기>에는 유정기와 성은주가 등장한다. 성은주는 ‘바 여급’이고 유정기는 손님인데, 두 사람은 우연히 조대빈과 합석하게 되고 결국 조대빈의 집으로 술자리를 옮긴다. 유정기와 성은주가 찾아오자 대화는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특히 ‘둘째 각시’를 언급하는 대목은 인상 깊다. 조대빈은 숨

겨둔 둘째 각시가 있다고 농담하는데, 이 농담은 <고초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고초열>에서는 젊은 연인으로 도준상과 이옥연이 등장한다. 이옥연의 직업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지만,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전력과 남녀 동거를 비교적 쉽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카페 여급의 인상과 흡사하다. 도준상과 이옥연도 취한 상태로 등장하며 농담을 하는데, 그 농담이 ‘둘째 각시’ 타령이다.

농담 안에 담긴 의미를 보다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환절기>의 둘째 각시는 비정상적으로 출발한 대빈과 나영의 관계에 대한 자조적인 고백일 수 있다. 대빈은 본래 정애와 약혼한 사이였는데, 결국 나영과 결혼한다. 이 문제는 대빈에게 피해의식으로 남게 되고, 둘째 각시라는 다소 자조적인 농담을 가능하게 한다.

<고초열>에서 도준상이 ‘둘째 각시 아직 안 들어왔느냐’고 한 농담은 이후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 옥연은 준상의 농담을 통해 준상이 주린에게 관심이 있음을 눈치 채고, 결국에는 자신의 자리를 주린에게 양보한다. 두 번째 애인(각시)으로 주린을 인정하고 준상의 곁을 떠나는 것이다. 무리한 전개로 지적될 수는 있지만, 농담대로 주린은 준상의 애인 즉 둘째 각시가 된다.

두 작품에서 농담의 유형과 그 농담에 담긴 뜻이 흡사하다. 정상적이지 못한 남녀 관계 그리고 변화되는 남녀 관계에 대한 비유로 ‘둘째 각시’는 풀이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둘째 각시’ 농담이 젊은 연인들의 새로운 탄생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두 작품에는 모두 엇갈린 연인의 운명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인 교환’ 모티프에 해당된다.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티프는, 오태석의 희곡에서도 경쾌한 웃음을 동반한 채 실연되고 있다. ‘연인 교환’ 모티프는 백로라에 의해 ‘짝 바꾸기’ 모티프로 지적된 바 있으며, 오태석의 초기 작품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모티프에 해

당된다.

4.1.5. 환상 장면의 투입

<환절기>에서 조대빈·한나영 부부가 유정기·성은주 커플과 게임을 할 때, 무대 위에는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대빈 그런데, 네 사람이 불바위가 저만큼 올라다 보이는 지점까지 왔을 때, 별안간 하늘로 먹구름장이 내닫구, 나뭇잎이 흔들리는가 했더니 폭풍설이 휘몰아치구, 마침내 네 사람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회색 장막 속에 갇힙니다. 이 때 도깨비가 나타납니다.

천둥치는 소리와 함께 테라스 쪽에서 등나무 잎사귀가 흔들린다. 응접실 전등이 깜박 꺼지려다가 희미하게 부들부들 켜진다. 테라스 등나무 뒤편에 어떤 모습이 실루엣처럼 등장한다.

소리 내가, 네 사람 전부는 안 되지만 두 사람만은 살려 줄 수가 있다 너희들이 상의해서 두 사람만 골라 놓도록 해라.⁷⁾

게임이 시작되자, 거실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환청 같은 소리가 들리고, 과거의 남자(김형주)의 것으로 보이는 실루엣도 등장한다. 사실적인 풍경에서 환상적인 풍경으로 이행하는 순간이다. 이러한 변화는 등장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주는 장치이다. 그런데 <고초열>에도 이러한 환상 장면이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다.

7) 오태석, <환절기>, 서연호·장원재 공편, 《오태석공연대본전집》 1, 연극과인간, 2003, 130~131면 참조.

무대 조명이 조금 어두워진다. 그리고 층계 위로 전혀 다른 색의 어느 만큼 비현실감을 줄 수 있는 특수 조명이 쏘아진다. 그리고 이후 국정의 액션(액션)은 마치 첫 동작선을 그릴 때의 연기자처럼 세트와 자기와의 위치 그러니까 얘기하려든 바, 그 때, 그때의 실제 현장에서의 위치와 거리 등을 일일이 눈어림해 보면서 그 위치와 방위를 찾기도 하면서 진행된다. (중략) 서너 마리의 개가 한꺼번에 짖는 듯한 소리가 무대를 빼곡이 채운다. 층계 위로 쏟아지는 불빛이 유난히 선명한 빛깔을 띄워 눈을 끈다. 그러나 거기 아무도 등장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스피커를 통한 여인의 소리가 그쪽이다 싶은 곳에서 울려 올 뿐이다. (중략) 멀리서 마치 야포 소리처럼 은은한 감미롭기까지 한 총성이 들린다.

국정 내 손에 총이 쥐어져 있었고 아내는 웃고 있었고 그 꺼먼 사냥개는 새빨간 핏덩어리가 되어 이 발 밑에 늘어져 있음이다.
소리 (느릿느릿한 어조로 감정 없이) 그때, 그 개가 몸을 피했다라면 대신 제 가슴에 빨간 얼룩이 졌을 거예요.

비현실적인 조명, 느닷없는 총소리 등장하지는 않는 인물에서 흘러나오는 음성 등은 <환절기>의 환상 장면과 대체로 일치한다. 사실적인 풍경 너머에 존재하는 기억을 재현하려는 연극적 시도이다. 이러한 환상 장면이 과거의 기억과 연관된다는 점도 동일하고, 그 기억이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점도 동일하다. 즉, <고초열>의 환상 장면은 <환절기>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4.1.6. 불안을 내재한 결말

<환절기>에는 두 부부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나는 유정기와 성은주 커플의 결혼이다. 이들은 손님과 술집 주인으로 만났으나 조대빈의 집에서 즐겁게 술자리를 갖은 이후에 결혼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의

탄생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보다 심층적인 것으로, 조대빈과 한나영 부부의 관계 변화이다. 대빈과 나영은 과거의 사건을 염두에 둔 채 살아왔다. 대빈은 나영이 애를 지운 것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영은 자신이 김형주의 애인이었음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다.

두 사람의 불안한 부부 생활은 김형주의 등장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지만, 나영의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작품이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나마 설악산 불바위 사건과 김형주에 대한 기억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부부로 탈바꿈되는 듯 하다.

이러한 변화는 작품의 결말에 큰 변화가 마련되어 있음을 뜻한다. 오태석은 <환절기>의 제목을 버스 손잡이에 부착된 “환절기에는 감기를 조심하세요”⁸⁾라는 광고를 보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나 과거의 치정 관계가 ‘환절기’처럼 지나가는 것이라는 뜻과, 별 것 아닐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빈과 나영이 겪는 고통이 환절기의 감기처럼 지나가는 이상 징후라는 의미이다.

<고초열> 역시 비슷하다 ‘고초열’은 작품 속에서 한 등장 인물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부인 (꽃을 들었다) 저 이걸 어쩌나
주린 왜요?
부인 저, 그 애가 이 꽃을 코에 대더니 그냥 재채기를 하면서 기침을 해대니.
주린 어마, 왜요?
부인 고초열인가 봐.

8) 오태석·서연호 대담, 장원재 정리, 『오태석 연극 실험과 도전의 40년』 연극과 인간, 2002, 44면.

주린 고초열이요?

부인 그런 병이 있어요. 꽃가루가 날라서 재채길 하고 기침을 하고 두드레기가 나고...

주린 어마 별 병이 다 있네요.

부인 상감 병이지 (하고 웃으며) 색씨는 괜찮은가 보네

주린 어디요 (하고 꽃에 코를 댄다.) 아유 향기롭기만 하네 (하고 웃는다)

고초열 역시 살짝 지나가는 가벼운 징후이다. 그러나 작품 속의 변화를 보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 부인이 말하는 ‘그 애’인 희정은 사랑의 열병에 빠졌지만, 국정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희정이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남자에게 애원하지만, 국정은 이를 어린아이의 치기쯤으로 치부한다.

사랑의 변화를 겪은 이는 주린이다. 주린은 대담하게 국정을 유혹하기도 했고, 국정에게 유혹을 받기도 했으며, 준상으로부터 싫지 않은 유혹을 받기도 했다. 주린의 기억에는 죽은 오빠와 오빠의 외도가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지만,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 비록 일시적일지언정 상처의 압박에서 벗어난다. 주린이 고초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희정과는 달리 건강하게 꽃을 받아드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암시한다.

이 작품에서 ‘고초열’은 ‘사랑의 열병’을, 고초열의 극복은 ‘사랑의 면역’을 뜻한다. 주린은 기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준상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환절기>에서 조대빈 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주린과 준상도 새로운 출발을 예비하게 된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한 쌍의 연인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처리한다. <환절기>에서는 연인의 마지막 모습이 사라진 상태에서 막이 내리고, <고초열>에서는 주린이 신비한 음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작품이 끝난다. 이러한 결론은 새롭게 출발하는 연인들의 삶을 함부로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게 만든다. 즉 결과를 확신할 수 있

도록 중용하는 ‘단힌 결말’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열린 결말’에 가깝다. 따라서 결말에서 주인공들이 오해를 해소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연인으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플롯 속에 남아있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안감이 가중되는 형국을 낳는다.

4.2.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에 변형된 모티프

4.2.1. 이름과 성격의 도용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는 1969년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드라마센터에서 초연되었다. 창작 순서를 보면 <고초열> 다음에 <여왕과 기승>이 집필되었고 그 다음에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가 집필되었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도 고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층으로 오르는 층계가 있는 주택의 응접실이다. 인물들이 움직이는 요로에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앞의 작품 <환절기>나 <고초열>과 동일하다. 특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고초열>과 일치한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와 <고초열>의 가장 유사한 요소는 인물이다. 두 작품에는 국정과 준상이라는 남자가 등장한다. 두 사람이 여자들 사이에 두고 일종의 삼각관계를 형성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고초열>에서는 그 여자가 주린이고,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에서는 이순이다.

먼저 국정은 속내를 파악하기 힘든 인물이다. <고초열>에서 국정은 아내를 죽이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주린을 유혹하려 했고, 유혹이 실패하자 주린을 죽이려 했다. 겉으로는 중후한 인상을 풍기지만, 속으로는 폭력적인 면을 지닌 인물이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의 국정은, <고초열>의 국정과는 상반된 면모를 보인다. 국정은 남의 집을 무례하게 침입하고, 하녀를 겁탈하며, 주

인을 협박해서 자신의 집처럼 지낸다. 이러한 무례함은 국정을 폭력배로 인식시킬 정도이다. 겉으로는 폭력적인 면모이다.

그러나 국정은 의외의 면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이순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바 있으며, 다시 그녀를 되찾기 위해 모험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순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내적으로는 인정어린 면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대목에서⁹⁾ 이순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죽은 척 하는 술책을 꾸민다. 이러한 면모는 순정을 버리지 못한 젊은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처럼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의 국정은 겉으로는 ‘무례한’이고, 속으로는 ‘순정과 젊은이’이다. 이러한 대비는 <고초열>의 국정과 정 반대의 양상이지만, 내면을 짐작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즉 오태석은 국정이라는 이름을 제시한 인물에게,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좀처럼 쉽게 파악되지 않는 인물형을 부여한 것이다. 국정은 오해하기 쉬운 인물로 그려져 있다.

반면 준상은 한량이고, 바람기 있는 인물로 설정된다. <고초열>에서의 준상은 옥연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가, 주린을 유혹하는 데에 성공한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에서의 준상은 이순의 남편이었지만 국정과 계약을 통해 이순을 넘겨준다. 준상은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만남과 헤어짐을 가볍게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준상은 내면적으로는 여자를 아끼고 있다. 주린이 이상 행동을 하자 다급해 하거나, 이순을 위해 마약 거래를 하고 그녀의 행복을 염려하는 언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준상은 여자들에게 따뜻한 연민을 버리지 않는 인물이다.

9) 기존의 해석은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의 결말에서 국정이 이순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백로라, 1960년대 희곡 연구, 송실대 박사학위논문 2001, 141면 참조). 그러나 텍스트에 국정이 이순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척 하라는 언질이 미리 있는 것으로 보아, 국정은 이순을 죽이는 척 했을 따름이다.

오태석은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에 ‘국정’과 ‘준상’이라는 이름만 도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과 행동 방향도 거의 유사하게 도용했다. 국정은 속내를 감춘 인물로, 준상은 바람기가 있으나 따뜻함을 지닌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4.2.2 여성 심리와 애정 관계의 혼란

국정과 준상은 여자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를 형성한다. 먼저 <고초열>의 경우를 보자. 준상은 평소부터 주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302호 여자의 죽음을 기회로 주린에게 협박을 가한다. 주린은 상처받은 국정을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국정은 주린이 살인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내자 거꾸로 주린을 유혹한다. 그러면서 준상·주린·국정의 느슨한 삼각관계(심리적 대치)가 형성된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의 경우는 보다 긴밀한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준상과 이순이 살고 있는 집으로 국정이 찾아오고, 국정은 준상을 협박하고 이순을 설득해서 이순을 양도받는 것에 합의한다. 다시 말해서 국정/이순/준상의 삼각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더 주목되는 것은, 여성들의 이해하기 힘든 이상 심리이다. <고초열>에서 주린은 느닷없이 국정을 유혹하기도 하고(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싫어하던 준상과 연인으로 맺어지기도 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국정에게 정보를 빼내라는 준상의 사주가 작용했지만, 그것으로 주린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고초열>의 주린이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은 죄책감과 관련이 깊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의 이순의 행동 방식도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 준상은 마약 거래를 감추기 위해 이순에게 국정을 유혹하라고 종용한다. 이순은 마약 거래가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을 알고 있기에 준상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순은 국정과 함께 떠나는 것에 동의한다. 아무리 준상이 국정을 유혹하라고 사주했다 해도,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국정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다. 국정은 과거에 이순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바 있다. 이것이 이순에게 죄책감으로 작용해서 국정의 청을 거부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고초열>이나 <유다여 님이 올기 전에>의 여주인공들은 이상 심리를 보인다. 변덕스럽게 남자를 유혹하고, 약속을 어기며 일관성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오태석의 텍스트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 심리가 명료하게 표현되지 못한 측면도 다분하다. 그러나 오태석은 등장하는 여자들이 숨겨진 심리적 빛, 그러니까 과거의 죄책감에 의해 행동하도록 텍스트에 상징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기이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초열>은 여주인공의 행동 방식 혹은 이상 심리에,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동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작품이다. 그러나 상징적인 측면이 강해서 명료하게 표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유다여 님이 올기 전에>에서 이러한 동인이 한층 명확하게 정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초열>의 삼각관계와 여성의 이상 심리는 <유다여 님이 올기 전에>의 기이한 구조와 특성을 만드는 선행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4.3. <조난> · <여왕과 기승>과 공유된 모티프

<조난>은 오태석이 정식으로 등단하기 이전에 창립한 회로무대의 공연작이다. 1963년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초연되었다. 이 작품 이전에 <영광>(1962년), <사중주>(1963년)를 창작한 바 있으나 지금으로써는 작품이 유실된 상태이다. 따라서 <조난>이 지금으로써는 오태석의 초기 습작 시절을 가장 먼저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조난>은 난파한 배의 상갑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배 안에는 선장

과 기관사 등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두 사람의 손님이 타고 있다. 조형(趙形)과 숙(淑)이다. 두 사람은 부부인데, 조형은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애인이다. <환절기>의 김형주나 <고초열>의 보일러 맨처럼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인물이다.

문제의 인물은 숙이다. 숙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이다. 숙은 장애인인 남편을 구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 배의 운임을 지불했고, 선장 이하 배에 탄 사람들의 성욕마저 풀어주었다. 그래도 선장은 조형을 괴롭히고 끝내는 처형하고 만다. 숙은 오태석 초기 희곡에 나타나는 상처받은 여자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 <고초열>의 주린이나 희정도 상처받은 여자이다. 숙은 결국에는 바다에 투신해서 죽게 되는데, 이것은 <고초열>의 국정의 아내가 죽는 모티프와 비견된다. 숙은 남자들의 손에 유린되고 간접적으로 살해되는 여인이다. <고초열>의 여인들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조난>부터 이러한 성향은 이어져 <고초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태석의 초기작에는 부부간의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녀가 등장하면 애정 관계가 생성되기 마련인데, 오태석은 이러한 일반적인 관계보다 한층 복잡하게 연인 혹은 부부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여왕과 기승>이다.

선덕여왕과 평민 지귀의 사랑 이야기는 매력적인 모티프이다. 엇갈린 사랑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작품이 <여왕과 기승>인데 이러한 남녀간의 애정 관계에 대한 천착은 그 앞 뒤 작품인 <환절기>나 <고초열>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환절기>는 대빈과 나영의 과거 애증을, <고초열>은 국정과 아내 사이의 애증, 주린의 과거 등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 관계가 연극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이후 오태석이 모색하는 전쟁, 이념, 사회에 대한 비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관심사이다. 이 시기 오태석의 관심은 부부

간의 애정과 내면적 긴장에 맞추어져 있었고 <고초열>은 충실하게 이러한 성향을 따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5. 오태석 초기 세계에서 <고초열>의 위상

오태석은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웨딩드레스>가 당선되면서 연극계에 공식 데뷔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68년 국립극장·경향신문 희곡 공모에 <환절기>가 당선되면서 ‘대형 신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환절기>는 임영웅 연출로 국립극단에서 공연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환절기>의 성공은 오태석에게 <고초열>의 집필 기회를 부여했다. 신협 측은 오태석에게 신작을 의뢰했고 연출가로 임영웅을 다시 위촉했다. <환절기>의 성과를 이어가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오태석은 약 2달 동안 <고초열>을 완성했고, 이 작품은 <환절기> 공연이 끝난 약 4달 뒤인 1968년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명동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고초열>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각종 평론과 연구에서도 <고초열>은 오태석의 작품으로 조명되지 않았다. 그만큼 잊혀진 작품이었다. 차라리 <고초열> 다음 작품인 <여왕과 기승>이 상대적으로 더 알려졌으며, <환절기>의 성공을 잇는 작품으로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가 자리 매김 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고초열>의 대본도 유실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작품에 대한 분석도 전무했다.

<고초열>에 대한 언급은 오태석의 60년대 활동을 기술하는 글에서 간혹 엿보인다. “1967년 <웨딩드레스>로 등단한 오태석은 희곡계의 돌연변이라 할 만큼 특이한 극작가다. 데뷔하자마자 매우 의욕적으로 작품을

발표한 그는 60년대 말까지 <환절기><고초열><육교 위의 유모차><여왕과 기승><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교향> 등 매년 두세 편씩 내었던 것¹⁰⁾이라는 이력 속에, <고초열>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작품 분석에서는 <고초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면서 오태석의 창작 세계를 조명하는 작업은 <환절기>에서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로 이어지는 분석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절기>에서도 보면 아내가 결혼 전에 자기 친구를 좋아했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학대한다. 그것도 이제는 식물인간이 된 친구를 집안에다가 끌어다 놓고서 아내의 피를 말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내는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애정과 우정의 괴리가 파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의 애증 얽힌 삼각관계는 다음 작품인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로 연결된다. 배신의 상징 같은 가룟 유다의 이름을 작품 제목으로 떠올린 것은 주인공 세 사람이 상호간에 배신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깥 출신의 한 여자(변이순)를 중심으로 전 애인 하국정과 현 남편(이준상)이 서로 팔아먹는 관계를 파헤침으로써 현대인의 모럴 부재 내지 불안과 위기의식을 노출시켜 보자는 것이다.¹¹⁾

<환절기>와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를 연속선상에 놓고 분석한다면, ‘학대받는 여자’의 이미지가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고초열>의 주된 줄을 포함시켜 분석한다면 학대받는 여자의 이미지 못지않게, 내면적으로 혼란을 겪는 ‘변덕스러운 여자’의 이미지도 발견될 수 있다. 또 국정·준상이라는 대조적인 남자 둘과, 남자들 사이를 오고 가는 여자 하나의 삼각관계를 주목할 수도 있다.

10) 유민영, 앞의 책, 537면

11) 같은 책, 537면

<환절기>의 나영은 과거에는 김형주의 애인이었고 현재에는 조대빈의 처일지언정(상황은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와 동일),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을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초열>의 주린은 두 남자 사이를 오고 가며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편으로 국정을 사이에 두고 희정과 대립하는 구도도 취하고 있다. <환절기>에서 <고초열>로 나아가면서 삼각관계는 중첩·강화되었고,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에 이르면 이러한 삼각관계의 외형과 이유가 대폭 정리되었다. 그러면서 내면적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힌 여자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환절기>와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를 연속적으로 살펴 볼 경우, 다음과 같은 지적도 가능하다. “<환절기>의 ‘짜 바꾸기’ 모티프나, <유다의 닭>의 여자 ‘거래’ 모티프는 개인이 계약의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물화되는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¹²⁾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환절기>와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를 연속적으로 고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결론임에 틀림없다

‘짜 바꾸기’는 좁게는 조대빈·한나영 부부와 유정기·성은주 커플이 한 상대 여자 밀어내기 게임을 뜻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조대빈·이정에 커플과, 김형주·한나영 커플이 예전에 이루었던 관계가 현재 조대빈·한나영 부부로 변한 현상을 가리킨다. 즉, 한나영은 결혼 상대 짝을 바꾸게 되었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에도 이러한 변화가 엿보인다. 과거에는 국정·이순 커플이었다가, 현재에는 이순·준상 커플로 변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국정·이순 커플로 재조정될 것이다 여기서도 이순의 결혼 상대가 바뀌고 있다.

이러한 짜 바꾸기 현상은 <환절기>와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계약의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물화되는 현실로 진단되었다. 하지만 <고초열>을 그

12) 백로라, 앞의 논문, 136면

사이에 두고 판단한다면 짝 바꾸기 현상은 숨겨진 여성의 욕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유다어 닭이 울기 전에>에서 이순이 보여주는 국정과 준상 사이에서의 줄다리기는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기보다는 사사로운 혼란 때문이다. 사사로운 혼란은 주린과 이순의 경우 과거에 저지른 죄의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현재의 연구 상태에서, <고초열>의 발굴은 오태석의 초기 작품 세계를 밝히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일단, 그것은 <환절기> 이후에 변화하는 오태석의 창작 성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 <환절기>의 극작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자료(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고초열>의 구조와 특징은, 성공한 작품인 <환절기>를 모델로 하고 있다. 두 작품은 구조가 유사하다. 과거에 살인 사건 혹은 그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고, 현재 부부는 과거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환절기>에서 조대빈과 한나영은 이정애의 죽음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고초열>의 국정과 부인은, 부관의 죽음이 고의적인 것이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을 들추어내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은 당사자의 내면과 부부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대빈은 나영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나영 역시 옛 남자와의 문제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 국정은 아내와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가, 비록 실수일망정 아내를 살해하고 만다. 과거의 살인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인해 부부들은 원만한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구조는 같다.

작품의 표면적인 줄거리는 이러한 과거의 기억(살인 사건)을 추적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두 작품의 차이점은 그 기억을 추적하는 구조에서 파생되는 긴장감에 있다. <환절기>의 경우, '설악산 불바위'에서의 사고, 그리고 이어지는 미스터리한 상황이 관객의 긴장감을 돋우는 데에

비해, <고초열>의 경우, 이를 추적하는 인물들의 과거 사실이 포함되면서(가령 주린의 오빠 살해) 산만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긴장감을 창출하는 인물에서도 <고초열>은 한계를 노출했다 <환절기>는 5년 전 사건의 비밀을 쥐고 있는 김형주를 식물 인간으로 출연시켜 조대빈·한나영 부부와의 묘한 구도를 이루어 내었다. 더구나 김형주는 5막에서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을 파괴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극도의 서스펜스를 창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5년 전 사건과 현재의 상황은 긴장 속에 연관된다. 이러한 인물 창조는 당시 최불암이 연기하여 극찬을 받은 사안이다.

표면적으로는 <고초열>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인물(기괴한 이미지와 정신 이상 징후)을 등장시켜 동일한 효과를 노렸다 보일러 맨은 보이지 않는 공간인 보일러실에 머물면서도, 등장 인물들의 이야기를 엿듣고 기척(문 여닫는 소리)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러다가 주린에게 상해를 입힐 뻔하면서 그 위험성이 알려지고, 결국에는 국정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비정상적인 인물이 사건에 개입해서 플롯의 방향을 선회시킨다는 점에서 <환절기>의 김형주와 비슷하다.

하지만 보일러 맨에게 주린이 과거의 잘못(오빠 살해)을 털어놓는 설정은 어색하다. 아무리 죄책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나 보일러 맨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당위성은 충분하지 못하다. 또 김형주가 무대 위에서 극적 공포감을 창출한 것에 비해, 보일러 맨은 그 만큼의 심리적 위압감을 발휘하지 못했다.

‘둘째 각시’라는 농담이나, 새로운 커플의 성립 혹은 열병과 같이 살아나는 연정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두 작품에는 부수적인 공통점 또한 많다. 이러한 점은 공연 상의 인접성이나 당시 상황(창작 계기)을 고려할 때, <고초열>이 <환절기>의 독창적 성과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이다. 이처럼 <고초열>은 <환절기>의 영향력과 성과를 뛰어넘은 작품은 아니다. 다만 이 작품을 통해 오태석은 <환절

기>의 극작법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작품인 <여왕과 기승>은 전혀 다른 창작법을 선보이면서 <환절기>와는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는 <고초열>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일단 <고초열>의 두 남자 주인공인 국정, 준상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국정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준상이 한량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지닌다는 점도 동일하다. 두 사람이 여자를 사이에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그 여자는 두 남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애정 행각을 보인다는 점도 같다.

오태석은 인물을 연상했을 때 떠오르는 대로, 등장인물의 이름을 짓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국정과 준상의 명명법은 그들의 인물 창조가 관련된 것임을 시사한다.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자의 캐릭터는 <고초열> 보다는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에서 보다 선명해졌다. 두 남자를 유혹하는 당위성이 증가되었고, 여주인공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동인이 보다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고초열>에서 주린의 심리적 동인인 죄책감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초열>은 오태석의 등단 무렵 작품으로, <환절기>와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 사이에 위치한다. 이 작품은 <환절기>의 성공에 여러모로 영향을 받았지만, 그 자체로는 창조적인 측면보다는 답습적인 측면이 강했다. 극작술의 측면에서 보면 구성과 인물 창조에 있어 개성이 두드러지지 못했다. 사건 전개에 무리함이 많았고, <환절기>에서 성공했던 이미지나 침묵의 효과에 미치지 못했다. 살인 사건의 배후를 추적한다는 추리서사의 문법도 무대적 긴장감을 획득하지 못했다.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에 비하면, 인물 창조의 미숙함도 드러내었다. 국정과 준상의 성격 변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고, 삼각관계와 주린의 행동 동기도 그 효과 면에서 뒤떨어졌다.

<고초열>은 단점과 한계가 많은 작품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환절기>의 극작술을 답습한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답습을 확인하면서 오태석은 창작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이후 <유다여 님이 울기 전에>에서 인물들의 성격 보강(심리적 동안)을 이룰 수 있었다. <고초열>은 ‘대형 신인’ 오태석이 프로 무대에서 처음으로 실패한 작품으로, 당시 자신의 창작 성향과 보완점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던 기점이었던 셈이다. 이것이 오태석의 초기 작품 세계에서 <고초열>이 지니는 실제 위상이다.

주제어 : 오태석, 고초열, 주린, 국정, 준상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오태석, <고초열>(공연대본), 1968년 10월
오태석, 《환절기 외》, 연극평론사, 1970.
오태석, 《초분》, 현암사, 1979.
오태석, 《오태석 희곡집》 1~4, 평민사, 1994.
오태석, 《오태석 희곡집》 5, 평민사, 2000.
서연호·장원재 편, 《오태석 공연 대본 전집》 1~3, 연극과인간, 2003.

2. 단행본

- 김남석, 『오태석 연극의 미학적 지평』, 연극과인간, 2003.
안느 위베르스펠드, 신현숙 옮김, 『연극기호학』, 문학과지성사, 1988.
오태석·서연호 대담, 장원재 정리, 『오태석 연극 실험과 도전의 40년』, 연극과인간, 2002.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흥성사, 1982.

3. 논문

백로라, 『1960년대 희곡 연구』, 숭실대 박사 논문 2001.

백로라, 『1960년대 오태석 희곡 연구』, 『한국연극연구』 2집, 한국연극사학회
1999, 167~204면

양혜숙, 『오태석론』, 『한국현대연극작가론』, 예니 1987.

여석기, 『밝아지는 창작극의 앞날』, 『중앙일보』 1968년 11월 9일

오태석·서연호 대담, 『오태석의 창작활동』, 『오태석 전집』 5, 평민사, 1994, 329
~351면.

K C I

Abstract

A study on Oh Tae-seok's Early Work, Centered on *Hay fever*

Kim, Nam-seok

Hay fever is a forgotten play in Korean play history. It is Oh Tae-seok's early work and presented by Sin-hyup. But the scholar and the persons concerned, forget about it. Formally, the reason is the play-book was lost, and the play data was lack. But essentially it is because of the defect that the play have. I find the *Hay fever's* play-book. And first, this paper introduce the story and the basic data of *Hay fever*. And secondly, discuss this play's special feature and defe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of Oh Tae-seok's early work.

Key words : Oh Tae-seok, *Hay fever*, Ju-lin, Gok-jeong, Jun-sang

접 수 일 : 2005년 2월 18일
심사기간 : 2005년 3월 1~25일
게재결정 : 2005년 4월 9일(편집위원회의)